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결정요인: 하위문화이론을 중심으로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Determinants of Older Adults' Perceived Effectiveness of Elder-to-Elder Care Services in Korea: A Subculture Theory Perspective

Kawon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하위문화이론을 바탕으로 노노케어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노케어 이용노인 30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노인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은 외로움·우울 등 마음상태 완화에서 가장 높은 긍정 반응(60.3%)을 보여, 정서적 지지 기능이 노노케어의 핵심 효과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돌봄서비스 정보 충분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 내용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한 이용노인이 43.9%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령, 돌봄 제공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위급 및 불만사항 대처 정보제공 정도가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노케어의 정서적 효과를 더 크게 경험하며, 충분한 사전 안내가 서비스 효과 인식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노인의 관점에서 서비스 효과 인식의 결정요인을 실증한 초기 연구로서, 이용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정보 제공과 고령노인 중심의 노노케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제어: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충분성,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하위문화이론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eterminants of perceived care service effectiveness among older adults using elder-to-elder care in Korea, drawing on subculture theory as a theoretical framework. Data from 305 older adult care service users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ervice users reported the highest levels of positive change in emotional well-being; particularly, relief from loneliness and depression, with 60.3% indicating improvements, confirming that emotional support was the outcome most strongly associated with elder-to-elder care. Second, the overall level of pre-service information provision was inadequate; 43.9% of service users reported receiving insufficient guidance on service prior to usage.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recipient age, the adequacy of care worker information provided, and the adequacy of emergency and complaint procedure information were significant positive predictors of perceived service effective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lder care service users tend to experience greater emotional benefits from elder-to-elder care, and that sufficient pre-service information is a key factor in enhancing perceived service effectiveness. As an early empirical study examining determinants of perceived care effectiveness from the perspective of elder-to-elder care service users, this study provides a policy basis for improving user-centered information provision and strengthening program outcomes, particularly among the older population.

Key words: elder-to-elder care, The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 (SESAP), information sufficiency, perceived care service effectiveness, subculture theory

이 연구는 202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의 원시 데이터(raw data)를 재분석한 것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제1저자 및 교신저자(kwkim@kordi.or.kr)

투고일: 2026. 05. 10. 심사완료일: 2026. 06. 04. 게재확정일: 2026. 06. 26.

I.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20.3%)에 진입하였으며(통계청, 2022),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비중은 2020년 3.6%에서 2050년 15.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21).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동시에, 돌봄 공급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2015년부터 2030년 사이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약 1억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ILO & OECD, 2019), OECD 주요국들의 장기요양 지출은 GDP 대비 1.5%로 재정 지출 부문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영역의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비율이 9.6%로 OECD 평균(10.7%)에 근접하고 있으며(OECD, 2021),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7.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김윤 외, 2020). 그러나 이러한 높은 돌봄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노인돌봄 정책을 운영해 왔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돌봄 제공체계 내에서 의미있는 보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써, 크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은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으로서, 노노케어(老老 Care)는 공공형의 대표적인 세부 사업이다. 노노케어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부확인, 말벗,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5년 노노간병사업으로 출발하여 2016년부터 현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김가원 외, 2022). 이처럼 노노케어는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돌봄 공급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공자와 수혜자가 동년배(同年輩) 노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돌봄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에 따르면, 노인들은 노년기 공통 경험과 동질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결속력을 형성하며, 동년배와의 관계를 통해 자아개념을 발전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Rose, 1965). 이 관점에서 노노케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동년배 간 정서적 유대를 매개로 이용노인의 심리적·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노화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기능 저하에 대한 상호 공감, 비슷한 생애 경험을 나누는 회상활동, 그리고 제공자와 수혜자 간 위계적 긴장의 완화는 동년배 돌봄이 지닌 고유한 효과로 논의될 수 있다(김가원, 2023). 그러나 노노케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참여 노인(돌봄 제공자)의 관점에서 참여 효과와 지속의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이용노인의 관점에서 서비스 효과를 실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수혜 노인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위문화이론의 이론적 틀로서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노노케어 이용노인 305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하위문화이론에 근거하여 노노케어 이용노인이 인식하는 돌봄서비스 효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함으로써, 노노케어의 이론적 정당성과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과 분포를 파악한다. 둘째,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정도 분포를 분석한다. 셋째,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하위문화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돌봄의 개념과 정책 동향

돌봄은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적 행위이다. Fisher와 Tronto(1990)는 돌봄을 우리의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며 개선하는 포괄적 활동으로 정의하며, 여기서 세계는 몸, 자아, 환경을 포함하는 복잡한 삶의 총체이다. Held(2006)는 기능적 돌봄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관계적 성격’을 강조하였으며, Brandsen(2006)은 돌봄의 본질이 수혜자의 욕구에 대한 이해에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돌봄은 타인에 대한 관심, 반응, 존중을 바탕으로 개인의 총체적인 삶의 질 유지를 위해 돕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김가원 외, 2022).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4호)에 따르면,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한 종류이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 방식으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 모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모든 대상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돌봄이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공감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더욱 확산되었으며, 돌봄 종사자를 핵심 필수노동자로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논의로 이어졌다(관계부처 합동, 2020).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기점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화를 추진해 왔다. 현재 노인돌봄 체계는 사회보험 영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대표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6년 기준 이용자 57.6만 명에 전담사회복지사 2,300여 명, 생활지원사 36,700여 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2026). 그러나 노인돌봄 수요는 공급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김윤 외, 2020), 한국의 장기요양 지출 비중은 GDP 대비 1.1%로 OECD 평균(1.5%)을 하회하고 있다(OECD, 2021). 또한 한국의 장기요양 병상 구조는 요양시설 24.8개, 병원 35.6개(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로, 병원 중심 돌봄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OECD, 2021), 지역사회 기반 재가돌봄 체계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재가돌봄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11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6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였고, 이후 2023년 7월부터 12개 지자체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본사업이 전면 시행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 흐름에서 노노케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인프라 중 하나로 기능하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적 고립 예방이라는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노노케어 사업의 주요 선행연구 고찰

노노케어는 노인일자리아업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2005년 ‘노노간병사업’으로 출발하여, 2006년 복지형 내 ‘노노케어사업’, 2016년부터 현행 노인공익활동사업 내 ‘노노케어’로 운영 체계를 갖추었다(김가원 외, 2022). 사업 내용은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며, 참여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연간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하며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보건복지부, 2026).

노노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는 독거노인, 부부노인, 조손가구, 경증 치매노인 등 취약노인이 대상이며, 연령, 경제상태, 건강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방문하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서비스 대상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노노케어 사업 규모는 참여노인 약 55,500명, 이용노인 76,900명으로 참여자 대비 이용자 비율은 약 1:1.4로 나타났다.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성별은 남성 29.1%, 여성 70.9%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7%, 차상위계층 4.6% 등으로 나타났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

노노케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서비스로는 말벗 및 안부확인 60.0%로 가장 많고, 가사지원 36.7%, 놀이 및 체조 활동 2.3% 순이다(김가원 외, 2022). 이처럼 노노케어는 신체적·물질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하위문화이론이 강조하는 동년배 간 정서적 유대 기능과 구조적으로 부합한다.

그 간의 노노케어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참여노인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참여노인의 활동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경제적 보탬, 건강 향상, 외로움 및 우울 감소, 사회적 자신감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신해윤, 방미선, 권수혜, 2020; 김가원 외, 2022; 김신희, 정순돌, 2025). 김가원 외(202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90% 이상이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지속 의향 역시 98.6%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의 관점을 지지한다. 활동이론은 노년기에도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Havighurst, 1968; Lemon, Bengtson & Peterson, 1972), 노노케어 참여가 노인의 사회적 역할 수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 효능감과 생산적 노화를 촉진한다는 설명과 부합한다.

한편 노노케어 관련 기존의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 수혜자인 이용노인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김가원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노노케어 돌봄서비스 이용 후 수혜노인은 외로움 및 우울 등 마음건강 상태 개선(평균 3.54점/5점), 생활환경 개선(3.55점), 일상생활 도움(3.50점), 신체적 건강상태 개선(3.28점) 순으로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외로움 및 우울 완화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높은 긍정 반응을 보인 반면, 경제적 도움에서는 변화 없음이 45.6%로 가장 많아, 노노케어가 정서적 지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노케어 이용에 대한 실태 파악에 그치며, 어떤 조건이 돌봄서비스 효과를 높이거나 낮추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동년배 매칭이라는 노노케어의 정책 설계 특성이 돌봄서비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노노케어를 일반적인 노인돌봄서비스와 이론적으로 차별화하는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3. 하위문화이론과 노노케어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은 Rose(1965)에 의해 체계화된 사회적 노화이론으로, 노년기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활동이론과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활동이론이 노화 적응에서 ‘활동’ 자체를 일차적 목적으로 본다면, 하위문화이론은 활동보다는 대인관계를 통해 창출되는 ‘자아개념(self-concept)’에 초점을 둔다(김가원, 2023). 하위문화이론의 핵심 명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은 이전에 경험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노화 적응에 긍정적이다. 둘째, 노년기에 속한 노인들이 지닌 공통적 특성과 함께,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동질의식,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 등이 상호 결속력을 높이고 그들의 하위문화를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셋째, 이러한 노인 하위문화 안에서 형성되는 동년배 관계는 노인의 정체성과 자아개념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위문화이론은 사회적 노화이론의 여러 갈래 중 하나로,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 활동이론(activity

theory), 교환이론(exchange theory), 사회적 와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 등과 함께 노년기 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 틀을 제공한다(Hariss & Cole, 1986; Hooyman & Kiyak, 2008). 특히 하위문화이론은 노인을 수동적 적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년배 집단 내에서 문화를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주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현대 노화 담론과도 부합한다. 하위문화이론의 관점에서 노노케어는 다음과 같은 차별적 의미를 가진다(김가원, 2023). 돌봄 제공자인 노인은 물질적 도움이나 신체기능 상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지만, 동년배로서 이용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의미를 찾는 회상활동을 통해, 노화에 따른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 저하에 공감하고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위계로 인한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매칭 특성 외에도 돌봄서비스 정보의 충분성이 중요하게 논의된다. 서비스 이용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현실적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더 높은 만족도와 효과 인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88). 노노케어의 경우 수혜노인이 돌봄 제공노인의 특성, 서비스 내용, 위급상황 대처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받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심리적 안전감이 높아지고, 이는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김가원 외(2022)의 연구결과, 노노케어 수혜노인이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안내를 자세히 받은 경우는 42.0%, 제공노인 정보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은 경우는 51.5%로 나타나, 상당수 노인이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돌봄서비스 정보 충분성이 노노케어 효과 인식의 중요한 가변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하위문화이론은 동년배 간 관계의 질과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유대는 서비스 이용 전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때 더욱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다. 노노케어 이용노인이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노노케어 참여노인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수록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고, 동년배로서의 동질의식과 신뢰 형성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충분성은 하위문화이론이 예측하는 동년배 유대 효과를 매개하는 실천적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상의 이론 검토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하위문화이론에 근거하여, 노노케어 이용노인이 인식하는 정보충분성 및 일반적 특성이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노노케어가 단순한 돌봄인력 공급 수단이 아닌, 동년배 간 정서적 연대에 기반한 차별화된 돌봄 모델로 이론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22년 7월 실시한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의 원시 데이터(raw data)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노노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으로, 방문면접 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유효 표본은 총 305명이다. 본 연구는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을 이론적 틀로 삼아,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서비스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노노케어 이용노인이 인식한 돌봄서비스 효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하위문화이론의 관점에서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서비스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으로, ‘귀하는 노노케어 돌봄서비스를 받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주관적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노노케어 이용 후 변화를 이용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외로움·우울 등 정서적 영역과 신체건강, 일상생활, 생활 환경이라는 네 가지 삶의 질 차원을 포괄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변화 없음, 5=매우 좋아짐)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47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는 노노케어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충분성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하위 변인은 돌봄 제공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돌봄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기타 위급상황 및 불만사항 대처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3점 척도(1=전혀 못 들었음, 2=약간 들었음, 3=자세히 들었음)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80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성별, 연령, 가구유형, 교육수준, 경제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표 1〉 참고).

〈표 1〉 변수 구성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조사내용 및 측정	신뢰도
종속변수	돌봄서비스 효과	1) 외로움 및 우울 등 마음상태, 2) 신체적 건강상태, 3)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외출 도움 등 일상생활에 도움, 4) 청결상태 등 생활환경의 개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	.747
독립변수	돌봄서비스 정보충분성	1) 돌봄 제공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2) 돌봄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3) 기타 위급상황, 불만 사항 대처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780
통제변수	성별	여성 1, 남성 0으로 구분	-
	연령	2022년 기준 만나이 산출	-
	가구유형	독거 1, 그 외 0으로 구분	-
	교육수준	중졸이하 1, 그 외 0으로 구분	-
	경제상태	국민기초생활 수급 1으로 구분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6.0을 활용하여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과 돌봄서비스 정보충분성 변인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를 검증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전체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Pearson 상관분석으로 변수 간 관계 및 다중공선성(VIF)을 사전 점검하였다. 셋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고, 돌봄서비스 정보충분성이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노노케어 이용노인 305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65.6%로 남성(3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80세 이상이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70~79세 41.9%, 60~69세 7.2% 순이며, 평균 연령은 약 79.2세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후기노인임을 보여준다. 가구유형은 1인 가구가

67.5%로 많았고, 노인부부가구 및 자녀동거 등이 32.5%로 구성되었다. 교육수준은 초졸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무학 25.2%를 포함하면 초졸 이하가 61.3%에 달해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9.8%로 약 3명 중 1명이 최저 생활보장 수급 대상이었다.

응답자의 특성을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노노케어 수요자 집단은 초고령 여성 1인가구 노인으로 대표되며,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취약집단이 노노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이들에게 노노케어 서비스가 지닌 의미와 중요성이 클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29.8%)과 초졸 이하 비율(61.3%)은 이용노인의 경제적·교육적 취약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특성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보 수용 능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 전달 방식의 접근성 제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305, 단위: 명, %)

구분	범주	빈도	백분율	구분	범주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200	65.6	교육수준	무학	77	25.2
	남성	105	34.4		초졸	110	36.1
연령	60~69세	22	7.2		중졸	51	16.7
	70~79세	128	41.9		고졸 이상	67	22.0
	80세 이상	155	50.8	기초생활수급	수급자	91	29.8
가구유형	1인가구	206	67.5		비수급자	214	70.2
	부부, 자녀동거 등	99	32.5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분포는 〈표 3〉과 같다. 먼저 주종속변수인 ‘외로움, 우울 등 마음상태 완화’는 5점 기준 평균 3.54점(SD=1.28)으로 4개 문항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좋아졌다’는 응답 분포는 60.3%로 전체 중 가장 높았으며, ‘전혀 변화 없음’은 8.9%에 불과하여 정서적 효과 측면에서 노노케어의 긍정적 기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 개선’이 3.55점(SD=1.34), ‘필요한 정보, 외출 등 일상생활 도움’ 3.50점(SD=1.22), ‘신체건강 상태 개선’ 3.28점(SD=1.23)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에 대한 네 개의 세부 영역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정서적 영역(마음상태 완화, 3.54점)과 생활환경 개선(3.55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신체건강 상태 개선(3.28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노노케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말벗 및 안부확인(60.0%), 가사지원(36.7%) 중심 서비스 구성과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서, 신체적 처치나 의료적 개입이 제한되는 노노케어의 서비스 범위를 감안하면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표 3〉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n=305, 단위: %, 점(5점 기준))

구분	전혀 변화없음	변화없음	보통임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SD)
외로움, 우울 등 마음상태 완화	8.9	13.8	17.0	35.1	25.2	3.54(1.28)
신체 건강상태 개선	9.2	19.7	23.3	29.5	18.4	3.28(1.23)
필요한 정보, 외출 등 일상생활 도움	7.5	16.4	16.4	31.5	25.2	3.50(1.22)
생활환경 개선	9.8	15.4	15.4	27.5	31.1	3.55(1.34)

주목할 점은 외로움·우울 완화에서 ‘좋아졌다’는 응답이 60.3%로 네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혀 변화 없음’은 8.9%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노노케어의 핵심 기능이 정서적 지지에 있으며, 동년배 간 교류를 통한 심리적 효과가 실제 이용노인에게 유의미하게 체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위문화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정서적 효과는 단순한 서비스 만족을 넘어 동년배 관계가 매개하는 자아개념 유지 및 심리적 안정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2) 돌봄서비스 정보충분성

노노케어 돌봄서비스 정보충분성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돌봄 제공노인에 대한 정보 안내’는 평균 2.22점($SD=0.91$)으로 세 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위급상황, 불만 사항 대처 안내’는 2.19점($SD=0.93$), ‘돌봄서비스 내용에 대한 안내’는 1.98점($SD=0.95$)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전혀 못 들었음’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약 30%를 상회하여 전반적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보충분성 세부 항목 중 돌봄서비스 내용에 대한 안내(1.98점)가 가장 낮고, ‘전혀 못 들었음’ 응답이 43.9%에 달한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용노인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돌봄 제공노인에 대한 정보 안내(2.22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수행기관에서 매칭 과정에서 제공노인 소개를 일부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나, 이 역시 ‘전혀 못 들었음’이 29.5%에 달해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낮다. 위급상황·불만사항 대처 안내(2.19점)의 경우, ‘자세히 들었음’이 52.1%로 세 항목 중 가장 높지만, 이는 기관별 편차가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세 항목 모두 3점 만점에서 2점 내외에 머무르는 현재의 실태로 비추어보아, 수행기관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 안내가 체계화 되어있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알권리 보장이 구조적으로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돌봄서비스 정보충분성

(n=305, 단위: %, 점(3점 기준))

구분	전혀 못 들었음	약간 들었음	자세히 들었음	평균(SD)
돌봄 제공노인에 대한 정보 안내	29.5	19.0	51.5	2.22(0.91)
돌봄서비스 내용에 대한 안내	43.9	14.1	42.0	1.98(0.95)
위급상황, 불만 사항 대처 안내	33.4	14.4	52.1	2.19(0.93)

3.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목적에 따라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5> 참고). 변인들 중에서 성별(여성=1), 가구형태(독거(1인가구)=1), 교육수준(중졸 이하=1), 경제수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1) 변인은 이분변수로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들의 F값은 6.079($p<.001$)로 나타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추정된 모형은 자유도를 반영한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의 값이 .118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노노케어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을 11.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은 독립변수들 간의 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공선성 통계량 결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은 공차한계 0.1 이상, 분산팽창요인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beta=.110$, $p<.05$), 돌봄제공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beta=.186$, $p<.05$), 위급 및 불만사항 대처 정보제공 정도($\beta=.241$, $p<.001$)는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제공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가 높을수록, 위급 및 불만

사항 대처 정보제공 정도가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성별, 가구형태, 교육수준, 경제수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는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세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면, 표준화 계수(β) 기준으로 위급·불만사항 대처 정보제공 정도($\beta=.241$)가 가장 크고, 돌봄 제공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beta=.186$), 연령($\beta=.110$) 순이었다. 즉 정보충분성 변수가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스 효과 인식이 이용노인의 고정된 특성보다 사전 안내라는 변화 가능한 실천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됨을 시사한다. 반면 성별, 가구형태, 교육수준, 경제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아, 취약성의 정도와 무관하게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노인의 서비스 효과 인식이 높아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한편 돌봄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서비스 내용 자체보다 제공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이용노인의 심리적 안정감에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향후 노노케어 제공노인과 이용노인의 실제 연령 차이, 서비스 지속 기간, 관계의 질 등 추가 변수를 포함한 확장 모형을 통해 노노케어의 동년배 돌봄 모델의 세부적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5〉 노노케어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B	SE	β	t	공선성 통계량	
					Tolerance	VIF
성별 ^a	-.003	.468	.000	-.006	.850	1.176
연령	.066	.033	.110	2.006*	.959	1.043
가구형태 ^b	.111	.459	.014	.242	.910	1.099
교육수준 ^c	.192	.534	.021	.360	.862	1.161
경제수준 ^d	.407	.469	.049	.868	.914	1.195
돌봄제공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812	.356	.186	2.281*	.435	2.297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081	.322	-.020	-.252	.471	2.122
위급, 불만사항 대처 정보제공 정도	1.014	.266	.241	3.816***	.726	1.377
constant(상수)	4.416	2.716		1.626		
F	6.079***					
R	.376					
R ²	.141					
Adjusted R ²	.118					

주 1) 기준집단: ^a 남성, ^b 독거아님, ^c 고졸 이상, ^d 국민기초생활수급 비수급자

2)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하위문화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노노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305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효과 차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종속변수인 외로움·우울 등 마음상태 완화는 평균 3.54점(5점 만점)으로 ‘좋아졌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환경 개선(3.55점), 일상생활 도움(3.50점), 신체건강 상태 개선(3.28점) 순이었다. 이는 말벗 및 안부확인 중심의 노노케어 서비스 특성상 정서적 지지 기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가 나타나는 노노케어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둘째, 돌봄서비스 정보충분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돌봄 제공노인에 대한 안내(평균 2.22점), 위급상황 대처 안내(2.19점), 서비스 내용 안내(1.98점) 순이었으며, 특히 서비스 내용 안내를 ‘전혀 못 들었다’는 응답이 43.9%에 달해 사전 안내 체계의 전반적인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beta=.110, p<.05$), 돌봄제공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beta=.186, p<.05$), 위급 및 불만사항 대처 정보제공 정도($\beta=.241, p<.001$)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 제공노인에 대한 사전 안내가 충분할수록, 위급상황 대처방법에 대한 안내가 충분할수록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성별, 가구형태, 교육수준, 경제수준,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하위문화이론은 동년배 간 동질의식과 정서적 유대가 노인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Rose, 1965).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노인일수록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후기 노인일수록 동년배 제공노인과의 공통 경험과 유대감을 더 의미 있게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하위문화이론의 관점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제공노인과 이용노인의 실제 연령 차이나 동년배성을 직접 측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하위문화이론의 직접적 검증으로 보기보다는 탐색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 정보 안내 체계의 전면 개선이 요구된다. 돌봄 제공노인에 대한 안내와 위급상황 대처 안내가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표준화된 사전 안내 절차와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가이드라인 보급이 시급하다. 특히 서비스 내용 안내에서 ‘전혀 못 들었음’이 43.9%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행기관별 안내 체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 차원의 표준 매뉴얼 마련과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의 후기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이 노노케어 서비스에서 더 큰 효과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집단을 위한 집중적 서비스 제공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시행에 따라 노노케어의 역할이 재정립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노케어가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이라는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통합돌봄 인프라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노노케어 이용노인의 돌봄서비스 효과 인식을 다변량 분석으로 규명한 초기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2022년 특정 시점의 단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우며, 조사 대상이 14개 수행기관에 한정되어 전국으로의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이용자 매칭 ID를 연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연령 차이와 성별 일치 여부를 직접 측정하고, 종단 자료를 통해 돌봄서비스 효과의 변화 궤적을 추적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12.14.).
- 김가원(2023).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고도화 방안. 2023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2023.5.12.).
- 김가원, 천재영, 홍선미, 강은나, 이상우, 채주석, 유선치, 선지원, 김담이(2022).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신희, 정순돌(2025).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코로나19 전후 일의 의미: 노노(老老)케어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5(5), 819-849.
- 김윤, 이재호, 정해관, 최정규, 전형준, 이철, 이진용, 안지현, 이주열(2020).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보건복지부(2026).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보건복지부.
- 신해운, 방미선, 권수혜(2020). 노노케어(老老-care)사업 참여노인의 돌봄제공 경험. 노인간호학회지, 22(3), 258-270.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2026).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 통계청(2022). 2021년 장애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 보도자료(2022.9.5.).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
- Brandsen, C.(2006). *A Public Ethic of Care: Implications for Long-Term Care. in Socializing Care* (pp. 205-226), Edited by M. Hamington & D. C. Miller. Lanham :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Fisher, B., & Tronto, J.(1990). *Toward a Feminist Theory of Caring. in Circles of Care: Work and Identity in Women's Lives* (pp. 36-54), Edited by E. Abel & M. Nels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ariss, D. K., & Cole, W. E.(1986). *Sociology of Aging*. Boston: Houghton Mifflin.
- Havighurst, R. J.(1968).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The Gerontologist*, 8(2), 67-71.
- Held, V.(2006).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oyman, N. R., & Kiyak, H. A.(2008).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London: Pearson Education.
- ILO & OECD(2019). *New Job Opportunities in an Ageing Society*. Paper prepared for the 1st Meeting of the G20 Employment Working Group. ILO & OECD.
- Lemon, B. W., Bengtson, V. L., & Peterson, J. A.(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511-523.
- OECD(2021). *Health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Parasuraman, A., Zeithaml, V. A., & Berry, L. L.(1988). SERVQUAL: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4(1), 12-40.
- Rose, A. M.(1965). *The Subculture of the Aging: A Framework for Research in Social Gerontology. in Older People and Their Social World* (pp. 3-16), Edited by A. M. Rose & W. A. Peterson. Philadelphia : F. A. Davis.

